

의안 번호	8 - 747
----------	---------

제안일자	2025. 6. 20.
제안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임.

목 차

I. 감사의 목적	1
II. 감사기간	1
III. 감사실시 기관	1
IV. 감사반의 편성	2
V. 감사실시 경과	3
VI. 증인출석 현황	4
VII.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7

I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시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II 감사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17일(화), 9일간

III 감사실시 기관

가. 본청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나.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다. 읍·면·동

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재)이천시청소년재단,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마.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

IV 감사반의 편성

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2025. 4. 18.)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합 계	17명	
	소 계	8명	
	위 원 장	김 재 현	
	부위원장	박 노 희	
	위 원	김 재 국	
	”	서 학 원	
	”	김 하 식	
사무보조 공무원	”	송 옥 란	
	”	임 진 모	
	”	박 준 하	
	소 계	9명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태 성	
	산업건설전문위원	노 필 원	
	의 사 팀 장	양 필 응	
	입 법 지 원 팀 장	이 재 태	
	지 방 행 정 6 급	김 수 미	
	지 방 임 기 제 7 급	윤 진 희	
	지 방 임 기 제 7 급	김 동 현	
	지 방 시 설 7 급	경 종 진	
	지방사회복지 8급	김 서 현	

V 감사 실시 경과

일 시		감사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6. 9.(월) - 1일차 -	10:00	본청(담당관, 과) 직속기관,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상임위원회실	서류 및 현지 확인
6. 10.(화) - 2일차 -	09:00	본청(담당관, 과) 직속기관,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상임위원회실	서류 및 현지 확인
6. 11.(수) - 3일차 -	10:00	본청(담당관, 과) 직속기관,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상임위원회실	서류 및 현지 확인
6. 12.(목) - 4일차 -	10:00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상임위원회실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
6. 13.(금) - 5일차 -	10:00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상임위원회실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
6. 14.(토) ~ 6. 15.(일)	휴 일			
6. 16.(월) - 6일차 -	10:00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임위원회실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
6. 17.(화) - 7일차 -	10:00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재)이천시청소년재단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읍·면·동	상임위원회실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

VI 증인출석 현황

구 분	직 위	성 명
기 획 예 산 담 당 관 (1 명)	기 획 예 산 담 당 관	김 종 태
감 사 법 무 담 당 관 (1 명)	감 사 법 무 담 당 관	윤 상 모
홍 보 담 당 관 (1 명)	홍 보 담 당 관	김 동 호
정 보 통 신 담 당 관 (1 명)	정 보 통 신 담 당 관	김 홍 진
자 치 행 정 국 (5 명)	자 치 행 정 국 국 장	이 태 희
	자 치 행 정 과 장	이 태 영
	민 원 여 권 과 장	이 미 연
	회 계 과 장	신 은 순
	체 육 진 흥 과 장	최 삼 권
경 제 재 정 국 (5 명)	경 제 재 정 국 장	김 종 호
	기 업 경 제 과 장	박 상 숙
	일 자 리 정 책 과 장	박 영 숙
	세 정 과 장	김 영 일
	세 원 관 리 과 장	김 은 이
문 화 교 육 국 (6 명)	문 화 교 육 국 장	최 병 탁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명 숙
	관 광 과 장	최 현 희
	공 원 녹 지 과 장	황 병 구
	시 민 교 육 지 원 과 장	임 철 순
	도 서 관 과 장	강 승 균
복 지 국 (5 명)	복 지 국 장	전 희 숙
	복 지 정 책 과 장	박 정 원
	노 인 정 책 팀 장	이 명 은
	여 성 보 육 과 장	홍 현 주
	청 년 아 동 과 장	이 용 례

구 분	직 위	성 명
도 시 주 택 국 (6 명)	도 시 주 택 국 장 도 시 과 장 허 가 과 장 토 지 정 보 과 장 주 택 과 장 건 축 과 장	박 철 희 김 영 재 오 근 철 송 시 훈 정 상 호 최 영 필
안 전 건 설 국 (6 명)	안 전 건 설 국 장 안 전 총 괄 과 장 건 설 과 장 도 로 관 리 과 장 교 통 정 책 과 장 차 량 등 록 과 장	이 재 학 이 태 용 나 성 균 이 재 영 이 희 종 이 운 용
환 경 수 자 원 국 (5 명)	환 경 수 자 원 국 장 환 경 보 호 과 자 원 순 환 과 수 도 과 하 수 과	신 종 화 김 미 라 박 기 환 이 천 수 김 홍 규
첨단미래도시추진단(3명)	첨 단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첨 단 전 략 산 업 과 장 미 래 도 시 과 장	정 인 우 이 은 미 남 길 형
보 건 소 (4 명)	보 건 소 장 보 건 위 생 과 장 건 강 증 진 과 장 질 병 관 리 팀 장	한 미 연 권 옥 선 홍 신 규 한 진 희

구 분	직 위	성 명
농업기술센터 (6 명)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 재 덕
	농업정책과 장	허 수 행
	축산과 장	조 완 근
	농업진흥과 장	박 종 인
	기술보급과 장	정 현 숙
	연구개발과 장	김 희 경
읍 면 동 (1 4 명)	장 호 원 읍 장	남 해 원
	부 발 읍 장	이 정 호
	신 둔 면 장	엄 명 옥
	백 사 면 장	백 은 숙
	호 법 면 장	윤 정 환
	마 장 면 장	황 인 동
	대 월 면 장	김 명 래
	모 가 면 장	여 재 동
	설 성 면 장	박 정 병
	율 면 장	백 춘 승
	창 전 동 장	김 선 희
	증 포 동 장	김 완 규
	중 리 동 장	이 경 화
	관 고 동 장	조 경 희
이 천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김 종 춘
(재) 이 천 시 청 소 년 재 단	대 표 이 사	구 문 경
(재) 이 천 시 자 원 봉 사 센 터	센 터 장	이 미 선
이 천 문 화 재 단	대 표 이 사	이 응 광

VII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 총 괄

(단위 : 건)

처리요구사항				우수사례
계	시정	처리	건의	
72	11	33	28	4

※ (2024년) 총 96건(처리요구 90건 / 우수사례 6건)

(2023년) 총 76건(처리요구 70건 / 우수사례 6건)

(2022년) 총 55건(처리요구 50건 / 우수사례 5건)

■ 처리요구사항 : 72건

연번	건명	처리 의견	소관부서	의원명	비 고
1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단축 방안 강구	시정	회계과	김재현	
2	예산 이월 반복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개선	처리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현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철저	처리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현	
4	남천공원 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처리	공원녹지과	김재현	
5	소규모주택 지원 예산 증액	처리	주택과	김재현	
6	하천 준설의 필요성	처리	건설과	김재현	
7	분수대오거리 신호 체계 재점검	처리	도로관리과	김재현	
8	반복적인 도로 굴착공사 개선을 위한 공사 정보 공유 체계 강화	처리	도로관리과	김재현	
9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 관리 철저 및 온라인 홍보 방안 강구	처리	이천문화재단	김재현	
10	중리택지지구 관련 환경 개선	건의	미래도시과	김재현	

연번	건명	처리 의견	소관부서	의원명	비 고
11	중앙통 문화의거리 이용 고객을 위한 화장실 개설 요청	건의	미래도시과	김재현	
1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효성 제고	처리	전 부서	김재국	
1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관리 부적정	시정	전 부서	김재국	
14	천연수세미 재배시설 및 가공시설 조성사업의 실효성 부족 및 예산낭비	처리	농업정책과	김재국	
15	이천 제4수변공원 내 조형물 관리	처리	이천문화재단	김재국	
16	규격에 맞지 않은 공인 정비 및 글자체 통일 필요	시정	자치행정과	임진모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의 의회 보고 실시	시정	도시과	임진모	
18	예산 집중투입을 통한 도로공사 적기완료 추진	건의	건설과	임진모	
19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 및 주차 요금 1일 최대요금 상한 폐지	건의	교통정책과	임진모	
20	공공시설(목욕탕)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운영 개선	시정	설성면, 울면	임진모	
21	똑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울면 고정노선 이용 편의 제고	건의	교통정책과	임진모	
22	서면심사 운영 부적정	처리	공원녹지과	서학원	
23	부서 존치 타당성 및 인력 배치 재검토 필요	처리	첨단전략산업과	서학원	
24	읍·면·동 소규모 SOC사업의 사전 의견수렴체계 강화	처리	읍·면·동	서학원	
25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	건의	민원여권과	서학원	
26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 부실	시정	시민교육자원과	서학원	
27	읍면지역으로 똑버스 노선 확대	건의	교통정책과	서학원	
28	도암삼거리 일원 배수로 정비 필요	처리	도로관리과	서학원	

연번	건명	처리 의견	소관부서	의원명	비 고
29	신둔면 장동3리 통과도로 내 무인교통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건의	도로관리과	서학원	
30	신둔면 장동3리 마을회관 진입로 정비	처리	도로관리과	서학원	
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부적정	처리	건축과	박노희	
32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업무 선정에 관한 투명성 및 선정 절차 준수	건의	자원순환과	박노희	
33	이천시청소년재단(동요역사관) 전국 동요제 행사 비용 과다 책정 및 동요제 운영 개선	처리	이천시 청소년재단	박노희	
34	가로수 관리 부적정 시정	시정	공원녹지과	김하식	
35	준공식 행사 과도한 비용 지출 개선	처리	전 부서	김하식	
36	국가 및 경기도 관리 도로 · 하천에서 발생하는 민원 적극 대응	처리	건설과, 도로관리과	김하식	
37	안흥~산촌 간 도로 가로수 식재	건의	공원녹지과	김하식	
38	이천문화원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문화예술과	박준하	
39	중양로 불법 증축 건물 점검	시정	건축과	박준하	
40	천연수세미 지원사업 부적정	시정	농업정책과	박준하	
41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 부적정	시정	이천시시설 관리공단	박준하	
42	설성면 수상행정복지센터 용역 부적정	처리	회계과	박준하	
43	이천문화원 행사운영비 사용 중 식대 기준 검토	처리	문화예술과	박준하	
44	이천문화원 사업비 사무용품 지출 적합성 부적정	처리	문화예술과	박준하	
45	방송매체 선정 기준 마련	건의	홍보담당관	박준하	

연번	건명	처리 의견	소관부서	의원명	비 고
46	이천사랑 지역화폐 정책발행액 확대 검토	건의	일자리정책과	박준하	
47	이천문화원 원고 작성자 자격 적합성 검토	건의	문화예술과	박준하	
48	장수수당 관리책임자 지정	건의	노인장애인과	박준하	
49	사전 재해예방 대책 철저	건의	안전총괄과	박준하	
50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스마트 대응체계 도입	건의	차량등록과	박준하	
51	집단 환경 민원 대응을 위한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	환경보호과	박준하	
52	흡연 단속 운영 강화	건의	건강증진과	박준하	
53	청소년 휴카페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이천시 청소년재단	박준하	
54	제로베이스예산기법을 활용한 예산편성의 구조적 점검 필요	건의	기획예산담당관	송옥란	
55	읍·면·동 감사 반복지적 방지를 위한 유기적 관리 강화	처리	감사법무담당관	송옥란	
56	법률홈닥터 공백 발생 시 행정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처리	감사법무담당관	송옥란	
57	분수대오거리 미디어파사드의 활용 다변화 및 수익형 콘텐츠 도입	건의	홍보담당관	송옥란	
58	반려민원 원인분석 및 사전 예방대책 강구	건의	민원여권과	송옥란	
59	체육회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강화	처리	체육진흥과	송옥란	
60	시립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상생 대책 필요	건의	노인장애인과	송옥란	
61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시 사회적 고립 방지 설계 필요	건의	청년아동과	송옥란	
62	북하천 제4수변공원 물놀이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확대 필요	처리	공원녹지과	송옥란	
63	이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조적 문제 진단 필요	처리	도시과	송옥란	

연번	건명	처리 의견	소관부서	의원명	비 고
64	민방위 대피시설 미지정 지역 추가 지정 및 장애인 대피환경 마련	처리	안전총괄과	송옥란	
65	구시~송라 간 도로 조속한 완공 및 위험구간 우선 정비 필요	처리	건설과	송옥란	
66	사고이월 사유 부적정 및 감사자료 부실 작성	처리	도로관리과	송옥란	
67	다산고 정문 앞 통학시간대 교통안전 미비에 따른 개선 요청	건의	도로관리과	송옥란	
68	상수도 요금 체납액 급증에 따른 체납관리체계 개선	처리	수도과	송옥란	
69	쌀과 반도체의 연계성 강화 필요	건의	첨단전략산업과 농업진흥과	송옥란	
70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전략 강구	건의	미래도시과	송옥란	
71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률 향상 제고 필요	처리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천문화재단	송옥란	
72	채용 결격사유 규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건의	이천시 청소년재단	송옥란	

■ 우수사례 : 4건

연번	건명	소관부서	의원명	비고
1	법·제도 개선 실적 우수	기업경제과	김재국	
2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서희테마파크 황톳길 조성	공원녹지과	김하식	
3	북하천 징검다리 설치사업 추진 우수	건설과	김하식	
4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성과 우수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박준하	

처리요구사항

1.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단축 방안 강구 (시정 / 회계과 / 김재헌)

창전동 행정복지센터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2024년 11월부터 인근 백화점 건물을 임시청사로 임대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건물 철거는 물론 어떠한 공사 착수 실적이 없는 상태임. 계획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임시청사 임대료가 매달 2,860만 원씩 지출되어, 지난 7개월간 약 2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은 장기화되고 있음.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며, 공종별로 향후 세부 일정 계획을 작성하고 공사 단축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 또한,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

2. 예산 이월 반복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개선 (처리 / 기획예산담당관 / 김재헌)

최근 수년간 당해 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예산 이월은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예산 비효율 사례이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왜곡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과다불용이나 이월 등으로 한정된 재원이 적기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필요성, 타당성, 실현성, 산출내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월 예산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함.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철저 (처리 / 기획예산담당관 / 김재헌)

2022~2024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5개의 부서에서 약 1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이 확인됨. 특히, 적발된 사례 중 대다수가 동일한 위반 유형으로 반복되고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함께 동일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 및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임.

4. 남천공원 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처리 / 공원녹지과 / 김재헌)

남천공원은 도심 내 중리동 상권과 인접해 있으며 지하공영주차장 개설로 많은 지역 주민과 상권 방문객, 특히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공원임. 남천공원 내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된 잔디 보호매트는 소재가 딱딱하고 탄력성이 부족하여 아이들이 뛰어놀다 넘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잔디 보호매트를 충격 흡수성이 뛰어난 재질로 교체하거나 잔디를 더 심는 등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5. 소규모주택 지원 예산 증액 (처리 / 주택과 / 김재헌)

2021 ~ 2025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공동주택의 지원비율은 8:2로 공동주택에 집중된 예산 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체적인 유지보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실질 수요에 맞게 증액하고, 균형있는 예산 분배와 아울러 미준공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6. 하천 준설의 필요성 (처리 / 건설과 / 김재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침수 등 주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하천 인근 주거지 및 농경지는 폭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관내 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준설 및 정비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복하천과 청미천 등 주요 하천은 수년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퇴적물과 자생 수목이 쌓이며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하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7. 분수대오거리 신호 체계 재점검 (처리 / 도로관리과 / 김재현)

분수대오거리 교차로의 직진 신호 시 우측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우회전 차량이 보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고 이로 인해 뒤따르는 직진 차량의 흐름 또한 모두 막히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우회전 차량이 정지와 출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이 증가할 우려도 있음. 해당 교차로의 신호등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와 충돌 예방 및 차량 통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8. 반복적인 도로 굴착공사 개선을 위한 공사 정보 공유 체계 강화 (처리 / 도로관리과 / 김재현)

최근 몇 년간 동일한 도로 구간에 반복적으로 굴착공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반복 굴착은 고쳐지지 않는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으며, 예산 낭비, 도로 수명 단축, 도시 미관 저해 및 교통 혼잡 유발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부서 간 공사 정보 공유체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하길 바람.

9.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 관리 철저 및 온라인 홍보 방안 강구 (처리 / 이천문화재단 / 김재현)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276점의 조각 작품이 이천 전역에 전시되어 있음. 그러나 그간 설치된 작품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작품은 거의 방치상태로 있으며 일부는 훼손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설치된 작품들의 보존 및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지속성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아울러

기존 작품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홈페이지의 활성화 등 디지털 기반 홍보 전략을 강화하여 조각 작품에 관심 있는 관광객이나 예술인들이 이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10. 중리택지지구 관련 환경 개선 (건의 / 미래도시과 / 김재현)

2026년 2월 예정된 중리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472세대, 약 10,894명이 입주할 예정이며, 인근 이천역세권지구에도 2,147세대, 약 5,797명이 입주하게 될 것으로 중리동 일대에는 약 16,691명에 달하는 인구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중리동 지역 내에는 대규모 인구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행정복지타운 및 기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중리지구 내 또는 인근에 행정복지타운과 같은 통합 공공시설의 조성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하며, 동시에 생활 인프라 확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11. 중앙통 문화의거리 이용 고객을 위한 화장실 개설 요청 (건의 / 미래도시과 / 김재현)

중앙통 문화의 거리는 약 500m 구간에 다양한 점포와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이천의 중심 상권으로, 각종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상권 밀집도 및 유동 인구에 비해 공공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며 도시 이미지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이에 따라, 중앙통 문화의 거리 내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변 상가 시설과 협의를 통해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

1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효성 제고 (처리 / 전 부서 / 김재국)

이천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조에 따라 단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3년 이상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평가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지속 여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점수에 따라 사업 유지, 예산 삭감,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조차 별다른 조치 없이 유지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실질적 성과가 없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도 다수 확인되며 일회성 또는 무용지물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함.

앞으로는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반영 및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관리 부적정 (시정 / 전 부서 / 김재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그러나 이천시에서 2024~2025년 동안 시행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사업의 정산 일자가 4월 이후인 게 확인되었음. 특히 보조사업 종료 시점이 12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서 제출과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됨.

이에 각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기한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이와 같은 관리 체계의 개선은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14. 천연수세미 재배시설 및 가공시설 조성사업의 실효성 부족 및 예산낭비 (처리 / 농업정책과 / 김재국)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천연수세미 재배시설 및 가공시설 조성사업’이 A 지방보조사업자를 통해 시행되었으며, 총 217,840천원의 보조금이 지원됨. 본 사업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대체작물 발굴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목적으로 수세미 재배 및 가공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 것임.

해당 보조금은 수세미 가공 기계장치, 저온저장고, 하우스파이프,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 플라스틱 바구니 구입 등에 사용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수세미 재배 및 가공·유통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단년도 사업으로 시설 설치에 그치고, 이후 지속적인 생산 및 판매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판단됨. 본래 목적에 부합하려면 설치된 시설을 통해 수확한 수세미를 가공 및 포장하고, 상품화하여 판매까지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설만 방치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보조금 사업 추진 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단기적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특히, 해당 시설이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A 지방보조사업자와 관련 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생산 및 판매 연계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에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15. 이천 제4수변공원 내 조형물 관리 (처리 / 이천문화재단 / 김재국)

이천 제4수변공원에 설치된 조형물이 현재 심하게 녹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원의 전반적인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형물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이에 녹슨 조형물에 대한 도색 및 정비 방안 마련 또는 이설 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길 요청함.

또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작가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유지·보수·이전·철거 등의 권한을 시가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협약 등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향후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관련 권한을 시에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16. 규격에 맞지 않은 공인 정비 및 글자체 통일 필요 (시정 / 자치행정과 / 임진모)

「이천시 공인 조례」 제5조는 이천시 공인의 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크기는 조례 별표에 따르고 글자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있는데, 신조된 공인 중 일부는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으며, 글자체는 훈민정음체와 한글전서체를 혼용하고 있어 통일성이 저해됨.

이천시 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규격에 맞지 않은 공인은 규격에 맞게 다시 신조토록 하고 공인 글자체는 한 가지로 통일하여 공인의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또한 「이천시 공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 조치하기 바람.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의 의회 보고 실시 (시정 / 도시과 / 임진모)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현재 총 147개소(2025년 5월 현재)로 도로 112개소 등 교통시설이 117개소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②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천시는 법령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의회 보고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법령 위반과 의회의 권한 행사를 침해하고 있음.

이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의 의회 보고를 매년 실시하고 법령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18. 예산 집중투입을 통한 도로공사 적기완료 추진 (건의 / 건설과 / 임진모)

이천시는 현재 80여 건의 도로사업(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및 보상, 착공(공사)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1개 도로사업을 완료하기까지 5~6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80여 건의 도로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 인해 예산 투입이 분산되어 적기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임.

도로가 지역 발전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큼. 오랜 기간이 걸려 여러 구간의 도로를 같은 해에 완공하는 것보다는 단 한 개라도 빨리 완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예산을 감안한 연간 추진 적정 사업량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적기(조기)에 완료하고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도로사업 추진 방식을 전환하여 주기 바람.

19.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 및 주차요금 1일 최대요금 상한 폐지 (건의 / 교통정책과 / 임진모)

남천공원 지하에 건립된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은 남천상점가 한복판에 위치하여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시설로,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8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임.

건립취지 및 위치적 특성을 감안하면,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은 남천상점가 활성화 위한 활용 및 기여가 확대되어야 함. 남천상점가 점포를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 편리성이 커질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장기주차 방지 및 남천상점가 이용객 주차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천상가 주차장의 1일 최대요금 상한을 폐지하기 바람.

20. 공공시설(목욕탕)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운영 개선 (시정 / 설성면·율면 / 임진모)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설성·율면 목욕탕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해당 시설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해당지역 주민과 타 지역 이용자(이천시민 외) 간 요금의 차이가 없는 점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용료 수입을 세입 예산(율면)에 편성하지 않는 점도 시정이 되어야 함.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목욕탕)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천시민과 이천시민이 아닌 사람 간 목욕탕 이용요금 조정 및 무료·할인 대상자 통일 등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사용료 수입을 세입예산에 매년 반영토록 시정하기 바람.

21. 푹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읍면 고정노선 이용편의 제고 (건의 / 교통정책과 / 임진모)

푹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고 이용자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 편에서는 불편과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음. 일례로 장호원 지역에서는 푹버스 대기시간이 2시간이나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용자가 많은 만큼 사업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더욱 필요할 것임. 푹버스 배차 프로그램 및 인력 운용 등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푹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읍면에서 고정노선을 운행하는 1대의 푹버스에 대해서도 고령 이용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고정노선임에도 전화 또는 앱으로 예약(호출)을 해야 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함. 고령이용자가 많은 읍면 고정노선 푹버스 이용방식을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청함.

22. 서면심사 운영 부적정 (처리 / 공원녹지과 / 서학원)

2023년도 도시공원위원회 및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코로나19를 사유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는 방역지침이 이미 완화된 상황으로 대면 회의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처리한 것은 단순 행정 편의에 따른 부적절한 운영으로 판단됨. 특히 해당 위원회들은 시민 생활환경과 안전에 밀접한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위원회 본래의 취지인 책임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서면심사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면 회의를 통해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관련 지침 정비가 필요함.

23. 부서 존치 타당성 및 인력 배치 재검토 필요 (처리 / 첨단전략산업과 / 서학원)

이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4년에 투자유치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착수하였음. 그러나 2024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년간 기업유치는 0건이며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실적은 협약 3건이며 모두 계획단계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임. 이러한 실적 수준은 도로관리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등 재난 대응·공공기반 인프라 분야에서 폭우·폭설 등 민원 대응에 고강도 근무를 수행하는 부서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내부 행정조직 간 균형성과 인력 효율성 차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비록 투자유치 업무는 외부 기업의 전략, 민간 변수, 중앙정책 방향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고 성과 도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순 협약 건수만으로 성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신설된 조직이 1년 이상 실질적이며 최소한의 구체적인 실적 없이 운영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조직 존치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24. 읍·면·동 소규모 SOC사업의 사전 의견수렴체계 강화 (처리 / 읍·면·동 / 서학원)

이천시 14개 읍·면·동에서 시행한 소규모 기반시설(SOC) 사업의 설계변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장호원읍 33건, 백사면 45건, 신둔면 30건 등 대다수 읍·면·동에서 빈번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유는 민원 반영에 따른 현장 조정으로 확인됨. 이러한 설계변경은 사업 기간 연장, 추가 사업비 발생, 공사 일정 지연 등으로 직결되며 그로 인한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됨. 특히 읍·면·동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주민 생활 밀착형 SOC사업(도로, 배수로, 보도정비 등)으로 조기 완료와 적기 집행이 시민 생활편의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견수렴 미비로 인해 반복적인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이에 따라 향후에는 설계 초기단계부터 이장, 통장, 마을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민원을 사후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의견수렴을 통해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5.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 (건의 / 민원여권과 / 서학원)

「이천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원으로 인한 폭언·폭행·인격 모독 등의 피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현재 운영 체계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소관부서에 제출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연차가 높은 직원일수록 심리적 부담이나 조직 내 분위기로 인해 현실적으로 자진신고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조례 제5조 제4호에서 명시한 “형사 고발, 법률자문, 변호사 지원”과 같은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 수단 역시 결국 피해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야만 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원여권과 등 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고 악성민원 피해사례를 수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각 부서 팀장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황을 인지할 경우 피해 직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공문에 신청할 수 있는 책임행정 체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신청과 동시에 시 차원의 형사고발,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조치를 자동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상담과 치유 위주의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반복되고 악의적인 민원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대응하고 보호하는 적극행정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26.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 부실 (시정 / 시민교육지원과 / 서학원)

이천시는 지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 중 하나인 과학고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 2월 최종 선정되었음. 과학고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천시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육 인프라 투자사업임.

그러나 공모추진 과정에서 공모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의회와 시민에게 비공개된 상태에서 추진되었음. 더욱이 최종 선정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

지 매입이 광역사무라는 법적 제약과 시가 확보한 부지를 교육청에 제공하는 방식의 법률상 한계, 중앙투자심사 통과의 불확실성 등 본질적인 법적 문제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법적 검토, 제도적 장애 요인에 대한 분석,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 없이 공모에 나선 점은 책임 행정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음.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과학고 추진계획 자료는 실제 행정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내용과 다수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사업추진 일정, 부지확보 방식, 예산 조달 방안 등 핵심 항목에서 실현 가능성과 일치하지 않는 계획만 제시되어, 자료작성의 성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49조는 행정사무감사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음.

27. 읍·면지역으로 뚝버스 노선 확대 (건의 / 교통정책과 / 서학원)

이천시는 2023년 12월부터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일명 뚝버스를 개통해 운영하고 있음. 뚝버스는 콜택시와 시내버스의 장점을 접목하여 고정노선 없이 수요자(승객)의 호출에 따라 운행되며 이용 요금이 일반버스 요금과 같고 이동 동선이 유사한 다수의 수요자를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임.

뚝버스의 개통으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이 증진되었고 현재까지 큰 호응을 받고 있음. 하지만 뚝버스는 이천 시내권역과 장호원읍, 율면 지역에서만 운행되어 교통 소외지역인 그 외 읍·면의 주민은 뚝버스의 편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큰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넓은 지역에 드문드문 있는 배차간격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으로 뚝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교통 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람.

28. 도암삼거리 일원 배수로 정비 필요 (처리 / 도로관리과 / 서학원)

도암삼거리(도암리 932-4) 일원 도로 배수로가 오랜 기간 토사 퇴적으로 막혀 배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우천시 도로 침수와 미끄럼 사고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신설·보수·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배수로와 같은 도로 부속시설 관리도 포함됨.

따라서 문제 구간에 대한 긴급 정비 조치, 초등학교 주변 위험지역에 대한 우선 점검 및 사전 정비, 읍면 배수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함. 시민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29. 신둔면 장동3리 통과도로 내 무인교통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건의 / 도로관리과 / 서학원)

이천시 신둔면 장동3리(약 200호 이상 거주) 일대 도로는 도암리 → 장동3리 → 백사면(전원마을)·여주시·홍천이포 IC·북여주 IC를 연결하는 주요 통행도로 차량 흐름이 크게 증가하여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주민 대다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자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와 최근 5월 마을회관 인근 가정집 철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도암리에서 백사면 경사리 방향으로의 무인교통감시카메라가 6월 초 설치되었으나, 반대 방향(경사리 → 도암리)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경사리 방향에서 도암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마을회관 커브 구간을 시속 90km 이상으로 통행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위험한 상태로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방향에도 무인교통감시카메라를 신속히 설치하길 건의함.

30. 신둔면 장동3리 마을회관 진입로 정비 (처리 / 도로관리과 / 서학원)

현재 신둔면 장동3리 마을회관 진입로는 노후화 및 파손으로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높음. 특히 진입로와 도로 경계 부분은 침하와 균열이 발생하여 작은 비에도 우수가 빠지지 않고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진입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장마철에는 마을회관 앞마당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주민의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해당 진입로는 주민들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공간으로 현재의 포장 상태 및 배수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장동3리 마을회관 진입로 보수와 함께 전면적인 재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부적정 (처리 / 건축과 / 박노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에 따르면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천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자체 시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물이 부족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인의 신고에 따라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주기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정비 활동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도시 및 자연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과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관리·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함.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조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건의함.

-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 등 법령상 이행 사항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정비 시스템 마련
-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관련 인력 운영 계획 수립
-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신고 및 대응 체계 마련

32.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업무 선정에 관한 투명성 및 선정 절차 준수 (건의 / 자원순환과 / 박노희)

이천시는 2023년 9월 말 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공급 등 관련 대행업무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한 바 있음.

그러나 한 달 후인 10월 말 해당 부서는 예산심의 협의 등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 위탁 계획을 보류하였음. 이후 2024년 1월에는 위탁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아닌 기존 업체가 대행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2025년 1월 이천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해당 기존 업체에 다시 위탁하였고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13년째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단에 대행업무를 요청하게 된 사유가 불명확하며 공익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공단 위탁이 무산된 사유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함. 특히 공단이라는 시 산하기관과의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 위탁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적 개선을 건의함.

- 향후 동일 업무 위탁 시 공정한 공개 절차 및 시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과의 충분한 협의 진행
- 현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공익적 목적 수행이 가능한 기관(시설관리공단 등)으로의 위탁 전환 방안 검토

33. 이천시청소년재단(동요역사관) 전국 동요제 행사비용 과다 책정 및 동요제 운영 개선 (처리 / 이천시청소년재단 / 박노희)

이천시청소년재단의 동요역사관은 이천시를 ‘동요의 메카’로 알리기 위해 전국 단위 동요대회를 추진 중임. 동요역사관의 2025년 예산은 약 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천 5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국 동요제 예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약 40%를 차지함.

먼저 과도한 일회성 예산 집행 문제임. 전국 동요제 상금이 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타 시군과 비교해 과도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신규 사업임에도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되었다는 우려가 있음.

둘째, ‘병아리 창작동요제’의 명칭을 2025년부터 ‘병아리 동요제’로 변경하고 창작 중심 기조를 전환한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함. 대안으로 제시된 한글사랑 나라사랑 창작동요제는 여주시 등 타 지역과 혼동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천 서희 창작동요제’, ‘이천 꿈나무 동요제’ 등 이천의 지역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전국 중심의 행사 운영 방식도 문제임. 현재 대회는 전국 단위 유치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천 지역 아동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부족함. 동요센터가 건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대회만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취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함.

- 예산 편성의 적정성 재검토
 - 전국대회 상금 등 과도한 일회성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됨.
- 병아리 창작동요제 명칭 변경의 재고
 - ‘병아리 창작동요제’ 명칭 변경은 14년 전통을 고려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사유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어야 함. 특히 지역 정체성과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 중심 명칭으로 재설정 요구함.
- 전국대회 중심의 운영 방식 개선
 - 전국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아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창작 활동과 지역문화 육성을 연계해야 하며 동요센터의 실효성 확보 후 전국대회 추진을 고려해야 함.

34. 가로수 관리 부적정 시정 (시정 / 공원녹지과 / 김하식)

부발역에서 죽당교 회전교차로를 지나 국도42호선에 접하는 구간에 식재된 가로수(미산딸나무) 중 절반 이상이 6월임에도 불구하고 이파리도 나지 않은 상태로 가로수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증일 사거리에서 신진리 사거리 구간에 식재되었던 가로수가 이식되었는데 이식 장소 파악이 안 되는 등 관리가 미흡함.

이천시 전 구역에 대한 가로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로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식재한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고사한 나무는 제거 또는 재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바람.

35. 준공식 행사 과도한 비용 지출 개선 (처리 / 전 부서 / 김하식)

도로, 주차장, 청사 등 이천시가 시행한 사업의 완료 등을 기념 및 홍보하기 위해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29건의 준공식 등 행사를 개최하였음. 평균 약 9,300천원이 사용되었고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된 행사에는 35,200천원이 쓰였음.

과도한 진행인력 동원 및 이벤트, 화려한 무대 설치 등이 비용 발생의 주된 요인이며, 자급이 가능한 물품까지도 비용을 주고 사용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로 개선이 필요함.

과도하고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고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는 방향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자체인력과 물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행사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36. 국가 및 경기도 관리 도로·하천에서 발생하는 민원 적극 대응 (처리 / 건설과·도로관리과 / 김하식)

국도 및 국지도, 국가하천 등 이천시 관내에 있지만 이천시가 관할하지 않는 도로나 하천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음.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말고 제도개선, 기관방문, 자체해결방안 강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리상황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민원업무 체계를 구축·확립하기 바람.

37. 안흥~산촌 간 도로 가로수 식재 (건의 / 공원녹지과 / 김하식)

2023년 12월 전 구간 개통 된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 서회교 사거리부터 산촌리 구간에는 가로수가 아직 식재되지 않음. 도로가 준공된 지 2년째가 되었고 해당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함. 식재한 가로수의 수종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종 선정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로수로서의 기능은 물론 지역적 특성 및 경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임.

현재 부발역부터 죽당천을 따라서 미산딸나무가 심어져 있음. 죽당천 미산딸나무 가로수길과 연결하는 개념으로 서회교사거리에서 산촌리 구간에도 미산딸나무 가로수길로 조성하면 이천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가로수 수종은 미산딸나무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늦어진 안흥~산촌 간 도로 가로수 식재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38. 이천문화원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 문화예술과 / 박준하)

2024년 이천문화원 결산서 중 학술세미나 포스터 제작비가 개인에게 지출되고 있는 건이 확인됨.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채주(거래처)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에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와 지출결의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 보조금 집행은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인쇄소, 디자인사 등)에 지급하여 세금계산서 등 공식 증빙을 받아야 하며, 개인(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예외 및 불가피한 경우는 만약 포스터 제작을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에게 맡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단순 개인(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이마저도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상 부득이한 경우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산간오지 등)로 제한됨. 이러한 사안을 참고하여 시정하시기 바람.

39. 중앙로 불법 증축 건물 점검 (시정 / 건축과 / 박준하)

2025년 6월 10일 행정사무감사 2일차 합동현지확인 중 중앙로 업사이클 문화 예술거리 현장을 방문하여 통행로 공사현황을 점검하던 중 불법 증축으로 보이는 건축물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관련 법령 위반 및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건축물의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면적을 늘릴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철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도로법 및 도로점용허가 관련 인도 등 공공도로 공간을 무단 점유해 영업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 위반에 해당하며, 단속 및 과태료, 강제철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사 작업물 등의 위반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또한 불법적으로 외부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역시 도시미관을 해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는지도 지도 점검 바람.

40. 천연수세미 지원사업 부적정 (시정 / 농업정책과 / 박준하)

수세미가공 기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는 D업체로,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수세미 가열, 탈피, 씨분리, 착유기 작업라인 등과 유사한 생산제품을 제조하지 않으며 자동볶음기의 경우에도 시중가 대비 견적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음. 또한 운반비와 설치비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음.

자동볶음기 구매와 관련한 지급회의서를 보면 D업체의 주소는 부천시 부발읍으로 기재되어 있음. 또한 고정자산 취득대장에 기재된 취득 금액이 견적서상의 금액과 상이한 점이 확인됨.

저온저장고 설치업체인 W업체는 주택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실제로 저온저장고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모든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A업체로 하여 발행하였고, 수세미 바구니는 A업체에서 구매하였다고 견적서에는 나와있으나, 보조사업자 매장에서 구입한 내역이 확인됨.

사업지는 총 5곳이나 관정 공사는 4곳에서만 진행되었으므로, 각 위치와 필요성 그리고 공사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수세미박스의 단가 역시 확인이 필요하며 A업체 자재과를 통해 구매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됨. 하우스 파이프의 단가, 개수, 면적 대비 금액 차이 또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수세미 가공 장비와 자동볶음기 등 주요 설비의 실제 생산 및 납품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생산이력, 납품실적 등 공식 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함. 만약 공급업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계약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견적 금액, 시중가, 운반·설치비 등 각종 비용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고정자산 취득대장과 실제 지출 내역이 일치하는지 재점검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해야 할 것임.

또한 계약 및 구매 절차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지급회의서, 실제 구매처 등 거래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보조사업자 매장 구매 등 내부거래가 발생했다면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저온저장고와 관정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업체의 자격과 경험, 실제 시공 내역의 적합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재시공이나 업체 교체도 검토해야 함.

아울러 수세미박스, 하우스 파이프 등 주요 자재의 단가, 수량, 총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외부 시세조사 및 재산정을 실시해야 함.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의 필요성, 금액, 위치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길 바람.

41.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 부적정 (시정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박준하)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위원회(협의체) 운영현황을 보면 이사,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명단에 수의계약 업체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이사회,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등)에 수의계약 업체의 대표자가 포함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단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위원회 명단에는 수의계약 업체 대표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며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와 감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42. 설성면 수상행정복지센터 용역 부적정 (처리 / 회계과 / 박준하)

주민 건의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성면 수상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 3월 21일 M연구원에 용역비 18,646,500원이 집행되며 연구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됨.

그러나 본 용역이 타당한 추진 사유와 함께 시민 다수의 의견 및 동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용역을 수행한 M연구원은 사업분야가 교육서비스업으로 주로 노조 교육, 정책 연구, 출판물 전문으로 하는 기관임. 이러한 교육서비스업 기반의 노조 교육 및 정책 연구, 출판기업이 해당 행정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듦. 이에 따라 용역 추진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의 타당성, 시민 의견 수렴 절차의 적법성 등을 재감사할 것을 건의함.

43. 이천문화원 행사운영비 사용 중 식대 기준 검토 (처리 / 문화예술과 / 박준하)

2024년 이천문화원 지출 내역 중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행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5,000원~25,000원의 식대가 지출되고 있는 건이 여러 개 확인됨. 자본이 전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의 예산서에는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등 항목에서 식대 지출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보통 1인당 20,000원~30,000원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식대 지출 결의 기준에 맞는지, 문화원 내부 규정, 이천시 및 경기도의 공동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확인 바람. 특히, 행사운영비는 공무원에 한해 1인 1식 9,000원 이내이며, 민간인 등은 행사실비지원금 등 별도 항목을 통해 집행해야 하나 구분 없이 진행된 것 같아 재검토 바람.

44. 이천문화원 사업비 사무용품 지출 적합성 부적정 (처리 / 문화예술과 / 박준하)

2024년 이천문화원 지출 내역 중 특별사업비로 사무용품(종이컵)을 구입한 건 등 다수의 건이 확인됨. 이천문화원은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사업비로 사무용품 구입이 가능한 경우 지방보조금 사업비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의미함. 이때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무용품(예: 복사용지, 필기구, 파일 등)은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사무용품 구입비를 사업비로 집행하려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해당 내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사업과 무관한 일반적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사무용품 구입 등은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 목적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를 바람.

45. 방송매체 선정 기준 마련 (건의 / 홍보담당관 / 박준하)

시장(市長)의 정치 성향에 따라 홍보 매체 선정과 홍보비 집행이 편중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중임. 타시군 또한 지자체의 광고·홍보 예산이 특정 성향의 언론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비판적 언론을 배제하거나 우호적 언론에 보상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현재 정책 홍보나 공고 등 광고를 집행할 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기관

역할을 맡고 있으며 “광고주(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매체를 선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고의 목적, 국민의 접근성, 매체 간 형평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매체 선정이 이뤄지고 있어 이천시의 시정 홍보가 특정 매체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언론매체 선정 시 형평성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반대로 자율성만 강조하면 특정 매체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봄. 따라서 홍보담당관에서는 시정홍보 예산의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46. 이천사랑 지역화폐 정책발행액 확대 검토 (건의 / 일자리정책과 / 박준하)

지역화폐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및 소비지원금 확대는 지역화폐의 사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큼.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사랑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소비지원금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을 건의함.

47. 이천문화원 원고 작성자 자격 적합성 검토 (건의 / 문화예술과 / 박준하)

‘이천역사문화자료조사’ 사업으로 구술생애사 원고 12편에 대해 작성자 9명이 작업을 하고 840만 원을 받았음. 또한 마을지 원고 집필에 개인이 5백만 원을 받았으며 마을지만들기 원고 교정비로 개인 2명이 각 1백만 원을 받는 등의 내역이 확인됨.

‘이천역사문화자료조사’ 사업의 구술생애사(원고작성자)의 선정방식이 공개모집 혹은 특정분야의 전문가, 연구자, 향토사학자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는지 지원자 또는 추천자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경력, 연구실적, 해당 분야 전문성, 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구술자를 선정하였는지, 선정된 집필자는 위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집필 범위 분량, 일정, 원고료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고 계약하였는지 등 확인 바람. 특히 자격 검증 절차와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었는지 확인 바람.

48. 장수수당 관리책임자 지정 (건의 / 노인장애인과 / 박준하)

이천시는 1년 이상 우리시에 거주한 9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4만 원의 장수수당을 드리고 있음. 그러나 건강 문제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직접 지급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릴 방법이 없어 추후에 지급된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생김. 이 과정에서 이미 돈을 다 써버리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병원 입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전출, 이사 등으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급 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의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행정기관에 이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담당자 지정이 필요함.

49. 사전 재해예방 대책 철저 (건의 / 안전총괄과 / 박준하)

우리 시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시설 사업 뿐만 아니라 예방, 경보, 감지, 알림 대부분의 분야에 예산과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는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노력에 만전을 다 해주시길 건의함.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기상청, 환경부 등과 연계한 실시간 위험 예측과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 취약지역에는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배수시설과 방재시설을 사전 점검·정비하여 침수 위험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람.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 취약구간은 집중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보수·보강해 주시기 바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취약계층을 위한 1:1 동행 체계와 대피훈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람. 또한 저수지 등은 사전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침수 예방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선조치 후보고 매뉴얼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0.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스마트 대응체계 도입 (건의 / 차량등록과 / 박준하)

우리 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며 교통 환경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2023년 이천시 콜센터에는 관련 민원이 총 5,121건 접수되며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이천시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대를 위해 더 많은 공공 주차장 조성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증차하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간을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게 해야 함.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콜센터 민원 접수 및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ai 기반 cctv 단속(김포공항), 스마트 경고 시스템(안양시), 드론 단속, 이동형 cctv, 버스 블랙박스 단속, 시민 신고 인센티브, 단속 실적 공개 및 평가 등의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이천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51. 집단 환경 민원 대응을 위한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 / 환경보호과 / 박준하)

2025년 5월 이천시 증포동 S아파트 인근 G건설 신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소음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함. S아파트 주민 중 30여 명은 이천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공사장 피해를 방관하는 이천시청 각성하라”, “소음지옥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와 같은 문제는 S아파트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건설사 간에도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일부 아파트 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도 동일한 민원에 반복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는 문제를 야기함.

이에 따라 민원현황을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예: 민원처리 현황 조회 서비스)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를 통해 현재 민원이 처리 중임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 동일한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제공은 행정력 효율화와 시민 편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의 활성화와 홍보, 민원처리 현황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2. 흡연 단속 운영 강화 (건의 / 건강증진과 / 박준하)

예산 투입의 효율성과 벌금 부과율을 고려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금연 단속이 이뤄지도록 운영 방안의 현실화가 필요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병원, 음식점, PC방,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 거주 세대 1/2 이상 동의로 지정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에 따라 흡연단속요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연중 상시 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3. 청소년 휴카페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이천시청소년재단 / 박준하)

청소년 휴카페는 상공회의소 2층에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하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 복지와 여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임. 그러나 아직 많은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재검토와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하는 방안을 제안함.

1.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

관내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카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지역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또한, 지역 축제, 청소년 행사,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현장 부스 운영,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길 바람.

2.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휴카페 내에서 각종 문화·예술 체험, 게임 대회, 진로 멘토링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길 바랍.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휴카페를 홍보하는 홍보단을 구성하여, 또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공간을 알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바랍.

3. 접근성 및 편의성 안내

상공회의소 2층의 위치, 운영 시간, 이용 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기 바랍. 또한, 실제 이용 청소년들의 생생한 후기와 사진, 영상 등을 SNS, 시 홈페이지 등에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더 많은 청소년에게 홍보가 될 것임.

54. 제로베이스예산기법을 활용한 예산편성의 구조적 점검 필요 (건의 / 기획예산 담당관 / 송옥란)

이천시는 매년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무지출성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세출 구조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반면 세입 구조는 SK하이닉스와 같은 일부 대기업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와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적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건전재정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을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기법(Zero-Base Budgeting)’을 적극 도입할 것을 건의함.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필요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함. 특히 국·도비 연계 사업, 민간보조금, 위탁사업 등에서 사업성과와 실적행률 등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

55. 읍·면·동 감사 반복지적 방지를 위한 유기적 관리 강화 (처리 / 감사법무담당관 / 송옥란)

2024년도 이천시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총 20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하천·도로점용 허가 관리 소홀 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 그동안 사례집을 통해 사전예방을 유도해왔으나, 부서 간 연계 부족과 현장 적용 미흡으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례집이 단순 참고자료로 그치지 않도록, 부서 간 공유와 피드백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례집을 기반으로 한 반복지적 항목 사전점검체계 마련, 정기적 사례 학습 및 교차점검 강화, 감사 이력 공유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읍·면·동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만큼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56. 법률홈닥터 공백 발생 시 행정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처리 / 감사법무담당관 / 송옥란)

이천시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0년 이후 매년 780건(2020년), 595건(2021년), 738건(2022년) 등 높은 이용 실적을 기록함. 이는 법률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발히 이용해 왔다는 방증임. 그러나 2023년 11월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자진 퇴사로 인해 2024년도 상담 건수는 118건으로 급감하였고 현재까지 공백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법률적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변호사 충원 지연에 대비한 대체 상담 인력 확보, 상담창구의 중단 없는 운영방안 등 행정적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기 바함.

57. 분수대오거리 미디어파사드의 활용 다변화 및 수익형 콘텐츠 도입 (건의 / 홍보담당관 / 송옥란)

2024년도에 추진된 이천시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사업은 약 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도시경관사업으로 도심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포함하여 시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이미지 개선과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현재 설치된 미디어파사드가 단순 반복적인 광고 노출에만 머물러 이천시만의 정체성을 살린 콘텐츠 부족 및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분수대오거리 미디어파사드를 단순 광고 매체가 아닌 이천시의 역사·문화·축제·예술 등 테마형 콘텐츠를 연계한 도시홍보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민간 기업을 통한 수익형 광고 운영 체계 구축하여 도시의 핵심 공간에 조성된 미디어파사드가 도시브랜드 강화와 수익 창출이라는 이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운영 전환이 필요함.

58. 반려민원 원인분석 및 사전 예방대책 강구 (건의 / 민원여권과 / 송옥란)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천시에서 처리한 반려민원은 총 365건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서류 미비, 자격 요건 미충족,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비교적 사소한 사유로 인해 정식 접수가 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반려민원은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력의 반복적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시는 반려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유형별 통계 정리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반려 가능성이 높은 민원에 대해 사전 단계부터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민원처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를 위해 홈페이지, 민원콜센터, QR코드,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민원 안내 강화가 요구되며 자주 반려되는 민원 유형에 대한 쉬운 설명자료 제공과 민원서식 예시 공개 등을 통해 시민이 민원접수 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반려민원은 단순히 민원 1건이 처리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행정의 품질을 평가받는 척도이기도 함. 따라서 시민 중심의 친절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 구현과 반려민원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59. 체육회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강화 (처리 / 체육진흥과/ 송옥란)

2024년도 이천시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은 약 30억 원, 집행액은 약 29억 원으로 잔액 약 1억 원이 발생하였음. 보조금 예산은 해당 연도 내에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체육회와 같은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집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매년 사업별 수요와 실제 집행률을 감안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향후에는 체육회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산정하고 필요 시 추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요청함.

또한 보조금 집행 실적 및 잔액에 대한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

60. 시립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상생 대책 필요(건의 / 노인장애인과 / 송옥란)

2025년 1월부터 이천시는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장면 단천리 산 55-1번지 일원에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 현재 이천시는 자체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은 고인의 화장을 위해 용인, 원주, 충주, 세종 등 원거리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민 편의와 품위 있는 장례문화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화장시설의 특성상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같은 이천시민의 정당한 우려로 보아야 하며 단순한 절차 이행이 아닌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시설의 안전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이 병행되어야 함.

또한 입지 인근 지역에 대한 생활SOC 확충 및 생활 불편 해소형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실질적인 상생의 틀을 만들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명회와 자문기구 구성을 통해 협의 기반의 설득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시립화장시설은 단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천시 전체를 위한 장사 기반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공감과 설득 상생의 행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61.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시 사회적 고립 방지 설계 필요 (건의 / 청년아동과 / 송옥란)

이천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 및 직업훈련실 등 맞춤형 지원시설을 신규 조성 중에 있음. 이는 제도권 교육을 이탈한 청소년들에게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공간의 폐쇄성과 고립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됨. 특정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오히려 사회와의 단절을 강화하거나 내부 중심의 폐쇄적 문화가 형성될 경우 본래의 자립지원 목적과 어긋날 수 있음.

따라서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심리적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구조 설계,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과 멘토링, 또래와의 교류 활동 기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열린 자립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이러한 방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분리된 보호’가 아닌 ‘함께하는 성장’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62. 복하천 제4수변공원 물놀이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확대 필요 (처리 / 공원녹지과 / 송옥란)

2024년 6월 7일 개장한 복하천 제4수변공원 내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여름철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나 평일 주중 이용객 수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물놀이장이 특정 시간대나 주말에만 이용되는 상황은 시설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예산 대비 효율성 또한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주중에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방안 마

련이 필요함. 우선 인근 어린이집과 연계한 체험형 물놀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단체 이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아 대상 기초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까지 병행할 경우 물놀이장이 단순 여가시설을 넘어 안전 교육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음. 또한 공원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동식 도서관과 작은 북카페 형태의 독서 공간을 마련하고 현장 내 카페 운영 시 이천쌀, 장호원햇사레복숭아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음료 및 간식 메뉴를 판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천시만의 특색 있는 소비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생업지원을 위한 소규모 매점 및 자판기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나 청년에게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물놀이장은 단순히 여름철 개방형 공간이 아니라 주중과 주말 모두 시민에게 열린 공공복지시설로 기능하도록 체계적 운영 개선이 필요함.

63. 이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조적 문제 진단 필요 (처리 / 도시과 / 송옥란)

이천시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78.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여전히 약 503만㎡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 존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단순한 계획 지연을 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도시공간 기능 단절, 예산 계획의 비효율,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도로, 공원, 학교용지 등 주요 기반시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내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고 시설이 실효될 경우에는 주민 불편과 함께 도시정비체계 전반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확보된 재정 여건에 비해 미집행 면적이 과도한 경우 투자 우선순위 설정이 모호해지고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따라 실효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연차적 투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계획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도시계획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함.

64. 민방위 대피시설 미지정 지역 추가 지정 및 장애인 대피환경 마련 (처리 / 안전총괄과 / 송옥란)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보·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임.

그러나 이천시의 읍·면·동별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따르면, 14개 읍·면·동 중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은 지정된 민방위 대피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확인됨. 법정 필수사항은 아니나, 최근 자연재난과 위기상황 증가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대한 조속한 대피시설 지정 및 확보가 필요함.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민방위 대피시설 및 지진 옥외 대피장소에 대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취약한 곳은 단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이 예외 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방위 체계 구축을 기대함.

65. 구시~송라 간 도로 조속한 완공 및 위험구간 우선 정비 필요 (처리 / 건설과 / 송옥란)

현재 추진 중인 구시~송라 간 도로 사업은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고위험과 통행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본 노선은 경사, 굴곡, 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도로 기능 측면에서도 지역 간 연결성과 접근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규 도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기존 사업의 완공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의 비효율적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노선의 조속한 완공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일정 기간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며 구시~송라 간 도로처럼 위험구간 해소가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 재조정 및 단계별 마무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66. 사고이월 사유 부적정 및 감사자료 부실 작성 (처리 / 도로관리과 / 송옥란)

2024년도 도로관리과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총 13건 약 26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9건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결원’을 사유로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보상 협의 지연,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직원 결원은 법정 이월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만약 이러한 기재가 행정 착오 또는 단순 오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식적이고 법정적인 감사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이월 요청 시 법령상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오류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는 내부 검토체계 마련, 기획예산 부서의 실질적 관리·점검 기능 확립이 필요함. 행정의 신뢰는 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에서 출발함을 다시금 환기할 필요가 있음.

67. 다산고 정문 앞 통학시간대 교통안전 미비에 따른 개선 요청 (건의 / 도로관리과 / 송옥란)

다산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통학시간대 학생 보행이 집중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선 미설치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도로가 복잡하고 차량 통행량도 적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현재 해당 구간에는 차선, 횡단유도선, 등하교 동선 표시 등이 전혀 없어 자가용 등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이나 통학버스 운행 시 혼잡과 위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제기 및 학부모의 불안도 지속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의 문제를 넘어, 학생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미비로 연결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다산고 정문 구간에 대해 보도 및 도로 경계 정비 통학시간대 유도선 설치 등 실질적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함. 아울러 다산고에 국한하지 않고 이천시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68. 상수도 요금 체납액 급증에 따른 체납관리체계 개선 (처리 / 수도과 / 송옥란)

2020년 약 848만 원이던 이천시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2024년에는 25억 원을 초과하며, 5년간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단순한 미납을 넘어, 체납관리의 실효성 부족과 사전 예방체계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생계형 체납자와 고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구분 없는 일괄 대응, 안내 부족, 상·하수도 요금 통합 부과에 비해 체납관리의 연계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따라서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과 함께, 자동납부 유도, 사전 안내 강화, 장기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함.

69. 쌀과 반도체의 연계성 강화 필요 (건의 / 첨단전략산업과, 농업진흥과 / 송옥란)

이천시는 2025년 하반기 쌀문화축제에서 농업테마공원 내 쌀문화전시관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SK하이닉스 반도체 홍보존 및 전시관을 병행 조성할 계획임. 이는 지역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인지도 제고와 시민 대상 산업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해석됨. 그러나 쌀문화축제가 본래 전통 농업과 지역 농산물 중심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한 행사임을 감안할 때,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 주제와의 정체성 충돌 및 연계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두 개의 주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방문객의 혼란을 줄이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병렬 전시가 아닌 ‘농업과 반도체의 연결고리’를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이 필요함.

따라서 축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 홍보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전시관 구성 단계에서부터 두 주제 간 통합적 기획과 연계성 확보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

70.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전략 강구 (건의 / 미래도시과 / 송옥란)

이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현재까지 총 6개 지역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총 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건물 정비나 환경 조성 등 눈에 보이는 시설 중심의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도시재생은 낡은 건물이나 공간을 새로 꾸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돌보고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높여가는 것이 핵심임.

특히 외형만 바꾸는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낙후되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시설 정비와 함께 주민 교육, 공동체 활동, 마을 운영 주체 육성 등 실질적인 내면 변화가 병행되어야 진정한 도시재생이 가능함.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간이나 시설을 개선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마을을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과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해야 함.

71.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률 향상 제고 필요 (처리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문화재단 / 송옥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및 이천문화재단의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각 관내 비율이 약 46%, 39%의 저조한 실적임. 이와 같은 실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된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 다소 괴리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특히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판로 확보와 경제 순환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바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계약 집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역경제 연계 원칙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음. 물론 수의계약의 특성상 가격, 납품 능력, 납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유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72. 채용 결격사유 규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건의 / 이천시 청소년재단 / 송옥란)

이천시 청소년재단의 「인사규정」 제17조에서는 다양한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파산자, 금고형 수형자,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경력자, 징계 파면자 등에 대한 채용 제한이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기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특성상,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대부분 행정정보시스템(범죄경력 조회, 공공기관 징계 기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공적 기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민간기업이나 비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징계 이력, 직장 내 성희롱, 부적절한 청소년 접촉 사례 등 비형사적·비공식적 위반사항은 파악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청소년시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형벌 기록에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의 직무 적합성과 인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근거를 재단 내 인사규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 수 사 례

1. 법·제도 개선 실적 우수 (기업경제과 / 김재국)

최근 3년간(2022년 ~ 2025년 4월까지) 이천시는 중앙부처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총 119건의 법·제도 개선 건의를 실시하였음. 이 중 수용 14건(11.7%), 검토 중 12건(10.1%), 불수용 93(78.2%)건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기업경제과에서는 총 18건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제출하였으며 이 중 일부 수용 1건, 검토 중 7건, 불수용 10건으로 수용률은 아직 높지 않으나 지속적인 건의와 개선 시도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앞으로도 지역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경우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불수용된 건의에 대해서도 재검토 및 보완 후 재건의하여 적극 행정을 실현하길 바람.

2.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서희테마파크 황톳길 조성 (공원녹지과 / 김하식)

공원녹지과는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활엽 소재 서희테마파크 축제마당에 110미터 길이의 황톳길을 조성하였음. 신발장과 세족장을 설치하여 황톳길 이용의 편의성을 더하였고 야간이용을 위해 조명을 설치하였음. 또한 사업비의 70%를 도비로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운용의 부담을 줄였고, 빠른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었음.

3. 복하천 징검다리 설치사업 추진 우수 (건설과 / 김하식)

2025년 6월 국가하천인 복하천에 징검다리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도보로 복하천을 건너다닐 수 있게 되었음. 결과물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결과를 만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고 상급기관을 수차례 찾아가는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 관계 공무원들의 공로를 칭찬하며, 복하천 징검다리는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이천의 명물이 될 것임.

4.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성과 우수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박준하)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은 도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입장료는 무료이며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등 일부만 유료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음.

공식적으로 별도의 홍보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와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의 꾸준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공단의 주요 수입원은 주차장과 농업테마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대부분 임에도 경영수지율 37%를 유지하고 있어 운영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됨.

앞으론 인력현황을 고려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며 수지율 제고와 더불어 이용자 확대를 위해 홍보, 마케팅, 시설 확대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봄. 아울러 홍보 및 마케팅 전문 인력의 채용을 통해 전략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생각됨.

여러 외부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영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본 시설을 공공시설 운영의 우수사례로서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의함.